

1. 행사개요

□ 행사 취지

- (목적)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에 앞서 지역 푸드플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방안 모색
- (기념행사) 정부 3주년 및 농특위 1주년
 - * 정책기획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 공동 추진, ‘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’ 슬로건 노출

□ 일시·장소 : '20.5.27.(수) 14:00~17:30 / 전주시립도서관 다목적실(4층)

*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(중화산동2가)

□ 참석자 : 김영재 위원장 직무대행, 전북도, 전북지역 기초지자체, 먹거리 연대, 관계부처, 유관기관 등 60명

2. 행사결과

□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에 앞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-광역-기초 지자체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 마련

-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지자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한 광역과 국가의 역할 제안
 - ①푸드플랜 관련 활동가 교육, ②지자체간 협력시스템 및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, ③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의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, ④부서간의 장벽해소, ⑤건강한 먹거리 생산 확대 등

□ 지역 푸드플랜 운영 성과를 공유하여 최근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벤치마킹 기회 제공

- 중간조직활성화(푸드통합지원센터), 생산자 조직화, 수산 로컬식품 지역내 유통활성화 방안, 공공급식으로의 확대 등
 - * 전주('15년 푸드플랜 최초 수립), 완주(로컬푸드 활성화) 등은 지역 푸드플랜이 활성화된 반면, 김제, 부안, 익산, 남원 등은 '19년 수립 또는 '20년 수립 예정

3. 행사 세부내용

□ 주요 일정

- (1부 개회식) 개회사·축사·환영사, 농특위 1주년 영상 상영
- (2부 토크쇼) 지역 푸드플랜 추진성과 공유,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내용
- (3부 종합토론) 지정토론 및 참석자 토론

□ 세부 일정

일 정	주 요 내 용
14:00~14:20	○ 개회식 - 국민의례 - 주요 내외빈 소개 - 인사말 : 김영재 농특위 위원장(직무대행) - 환영사 : 김승수 전주시장 - 축사 : 전주시의회 의장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
14:20~15:30	○ [발표1] 지역 푸드플랜 추진 성과 공유(각 10분) - 기초지자체 푸드플랜 활성화 및 광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방안 * 강해원 과장(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) - 지역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성과 * 강성욱 센터장(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) - 생산자 조직화와 로컬 수산식품 유통 활성화 방안 * 박경남 계장(군산시 먹거리정책과) - 로컬푸드를 넘어 공공급식으로 영역 확대의 성과 * 정재윤 과장(완주군 먹거리정책과)
15:30~15:50	○ [발표2] 국민과 함께, 지역과 함께 수립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* 황영모 연구위원(전북연구원)
15:50~16:00	< 휴 식 >
16:00~17:20	○ 종합토론 - 진행 : 윤병선(농수산식품분과) 위원 - 지정토론 * 김보금(사)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) 대표 * 유정희(전주먹거리연대(준)) 공동대표 * 채상원(전북학교급식센터협의회) 회장 - 참석자 토론
17:20~17:30	○ 폐회(곽금순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)

□ 발표 주요 내용 및 토론결과

(1) [발표] 지역 푸드플랜 추진 성과와 국가 정책 건의사항

- (전라북도 강해원과장) 농촌과 먹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도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 추진 중
 - 14개 시·군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상호 보완적이고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(가칭)전북푸드플랜 추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
- (전주시 강성욱센터장) 전주푸드 2025플랜을 수립하여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지역 푸드플랜 추진하고 있음
 - 지자체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활동가 교육과 지자체간의 연대,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 국가정책 필요
- (군산시 박경남계장) 생산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한 친환경농산물 출하농가 조직화로 기획생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수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군산 수산물의 지역내 유통활성화 노력중
 - 기획생산 체계가 지역 푸드플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필요
 - 지역 어민과 수산 가공업체들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 내 전처리·소분 유통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
- (완주군 정재윤과장) 로컬푸드를 처음 시작하여 학교급식으로 확대, 공공기관 급식, 취약계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
 -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

(2) [발표]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

- (황영모 부장)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‘먹거리 이슈(문제점)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개선·시정하는 종합대책’으로 성격을 규정

- 장기적인 관점으로 먹거리 전략의 종합적인 방향과 지역과 국가 먹거리 전략의 통합성을 확보해야 함
- 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먹거리 정책의 활성화 방안, 민관 협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책과 전략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

(3) [종합토론] 지정토론 및 참석자 의견

- (윤병선 좌장) 전북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관련 활동을 추진해 온 지역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함
- (김보금 대표) 푸드플랜은 지역 주민과 소통을 기반으로한 정책이 되어야 함
 - 하지만 지자체는 푸드플랜 수립하였거나 추진 중이나 지역 주민들은 아직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
 - 최근 먹거리 안보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건강한 소비자 의식 강화, 지자체 부서간의 장벽 해소, 건강한 먹거리 생산 확대 방안 필요
- (유정희 준비위원장) 푸드플랜의 시행에는 민관 거버넌스가 중요
 - 농정틀 전환과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필요
 - 지역 푸드플랜의 성과와 평가를 위한 사례 중심의 간담회도 필요
- (채상원 회장) 푸드플랜, 로컬푸드의 가중 기초는 기획생산이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먹거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주체를 고민하고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
- (참석자 주요의견)
 - 소규모 지역의 경우 소비기반이 너무 적어 농산물 판로의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농촌지역 농산물의 소비창출 방안 필요

-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 예산으로 공공급식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
- 서울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전북도 지자체가 함께 교대로 추진되었으면 함
- 푸드플랜은 행정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정책임을 인식해야 함
- 먹거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식생활교육을 집중해야 하며,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

4. 향후 주요 계획

- ☐ '농정틀 전환 전국협의회'와의 간담회(7월 중)
 - 9개 광역지자체 농특위의 먹거리 담당자들과의 간담회
- ☐ 먹거리 관련 중간지원조직 간담회(8월 중)